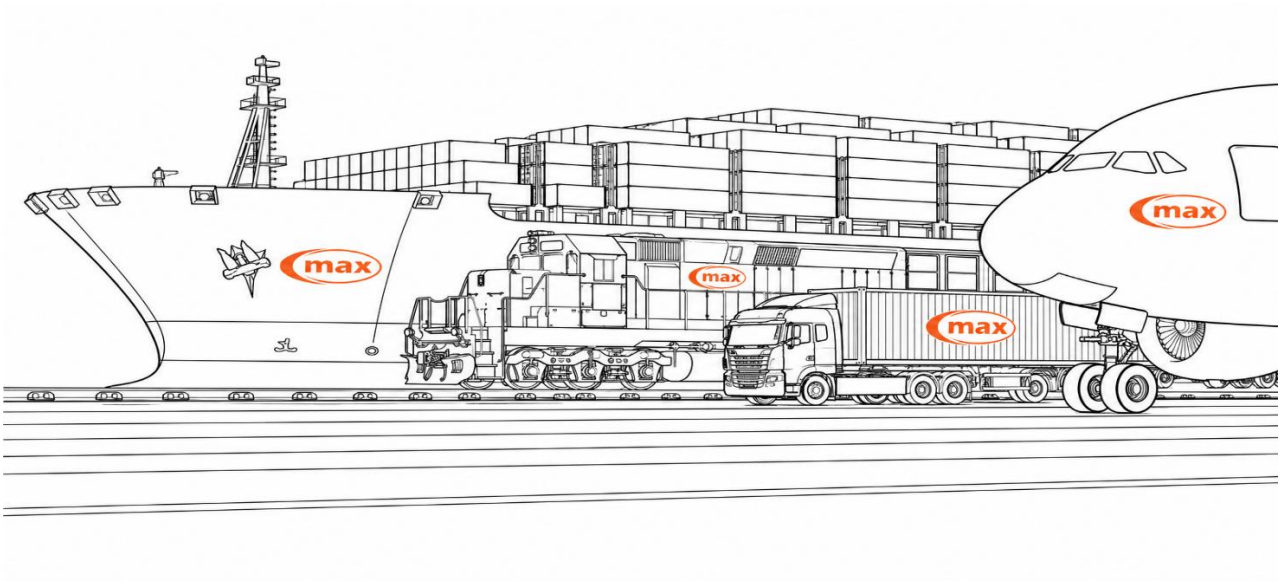


지점소식

- 도쿄지점
  - 2026 년 11 월 3 일(화) : 문화의 날
  - 2026 년 11 월 23 일(월) : 근로 감사의 날
- 하노이 지점
  - 서울지점 영업팀에 근무하던 이진섭 매니저 CS 담당 매니저로 합류
- 파리지점
  - 2026 년 11 월 1 일 (일) : All Saints' Day
  - 2026 년 11 월 11 일 (수) : Armistice Day
- 애틀랜타지점
  - 2026 년 11 월 11 일 (수) : Veterans Day
  - 2026 년 11 월 26 일 (목) : Thanksgiving Day

지역동향

- 서울지점
  - 미·중 무역휴전 연장 기조 지속 : 양국간 관세 협상 윤곽이 구체화될 경우, 보류되었던 중국발 대미 물량이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 트랜스퍼시픽 노선 변동성 확대 전망
  - EU De Minimis (소액면세) 제도 변경 이후 이커머스 항공화물 흐름 재편 지속 : 유럽향 이커머스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둔화세, 반면 고부가 반도체·전자부품 수출은 견조한 흐름 유지
  - 미국 9 월 ISM 제조업 PMI·수주잔고(Backlog)·재고지수 분석 결과, 연말 성수기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망 : Bain & Co 등 주요 기관도 작년 대비 과열되지 않은 '점진적' 성수기를 예상
  - LA/롱비치항 9 월 물동량 역대 최대치 기록 이후에도 수입 강세 지속, 미국 주요 교역국 구성 변화 (중국 비중 축소, 동남아·인도 비중 확대) 및 공급망 병목에 따른 해상→항공 모달시프트 경향 지속
  - 태평양 해상운임 피크아웃 조짐 : 다만 파나마운하 흘수 제한, 태풍으로 인한 선대 적체 (SeaIntel 추정 전체 선대의 약 8.5%, 2027 년초까지 영향) 등으로 해상 서비스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항공 전환 수요를 뒷받침
  - 마닐라항 공컨테이너 적체 및 주요 선사 신규 부킹 중단(~12/31), 10 월초 방콕 집중호우로 인한 반입제한 등 동남아 권역 해상 차질이 항공 전환 요인으로 작용
- 홍콩지점
  - 홍콩 정부 공공 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5년 계획'을 발표, 향후 주택 공급 비율은 민간주택 30%, 공공임대주택 40%, 보조금 분양주택(居屋·Home Ownership Scheme) 30%로 재편
- 타이페이지점
  - TSMC를 위시한 글로벌 AI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대만의 2026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12%대로 상향 조정
- 도쿄지점
  - 임시국회 개막과 소비세 인하 논의 :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8%→1%) 및 저·중소득층 지원금 지급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

- 일본은행 (BOJ) 10월 금리 동결 전망 : 이달 말(29~30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1.2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12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 방재 및 '제2수도' 구상 논의 : 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책의 일환으로, 국가 기능 분산을 위한 '제2수도' 후보지 검토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안전성과 인프라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

❁ 호치민지점

- 베트남 롱탄신공항, 여객터미널 등 핵심사업 인력난에 지연 우려, 건설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사업 공정률 86%로 12 개 패키지 중 4 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대금지급 지연이 겹치면서 2026 년 12 월 24 일 상업 운항 목표에 차질이 우려 (최종 완공시 연 여객 1 억명, 화물 500 만톤 처리 목표)
- 빈패스트, 내년까지 호치민서 '자율주행 택시' 200 대 시범운행 추진, 당국 승인 후 호치민시 빈홈그린파라아디스 단지 내 제한적운행
- 빈그룹, 5 억 달러를 투자하여 필리핀 연산 20 만대 규모의 전기차공장 건설 추진

❁ 방콕지점

- 태국–미국 무역협정 11월 서명이 추진되고 있어 미주향 물량 증가 및 공급부족에 따른 운임 인상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태국산 제품에 미국 관세 12.5% 적용 중, 협정 체결 시 관세 인하 기대

❁ 충칭지점

- 지난 3 분기, 충칭 현대 제조업 클러스터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전년동기대비 폭발적인 성장을 시현, 반도체 31.6% 증가, 신에너지 및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26.6% 증가, 고급 오토바이는 15.0% 증가, AI 및 로봇은 13.6% 증가, 오토바이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각각 51.9%, 41.6% 증가

❁ 상하이지점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최초의 표준화 자주 개방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향후 국제 표준 제정 참여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9 년까지 국제화된 표준화 개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제 9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CIIE)의 첫 해외 전시품이 10 월 12 일 상하이에서 통관을 완료, 상하이 세관은 전담 창구와 전용 통로 123 개를 운영해 전시품 통관을 지원하며 박람회는 11 월 5~10 일 개최될 예정

- 광저우지점
  - 중국 해관총서 광둥분서는 최근 금년 1~9 월간 광둥성 수출입 총액이 8 조 7,200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 수출 총액은 5 조 1,100 억 위안으로 14.2%, 수입 총액은 3 조 6,100 억 위안으로 42.5% 증가
  - 동 기간 APEC 기타 회원 경제체와의 무역액은 5 조 7,400 억 위안으로 26.4% 증가하여 광둥성 전체 무역의 65.9%를 차지하였으며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 무역도 각각 20.2%, 23.4%, 6.7% 증가
- 선전지점
  - 11 월 18 일부터 19 일까지 개최되는 APEC 제 33 차 비공식 지도자 회의 지원을 위하여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1 월 16 일부터 20 일까지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배치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green mobility) 이용을 권장
- 톈진지점
  - 1~3 분기 천진항 화물 물동량은 약 3 억 9,000 만 톤, 컨테이너 1,961 만 TEU 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3.6% 증가,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미 서부, 멕시코 등 해상 항로를 신설 및 증편하여 대외 항로가 91 개에 달했으며, 과일 특송, 체리 특송, 완성차 롤온롤오프 등을 운영하고 있어 톈진항이 범용 벌크화물 항구에서 '특화된 공급망 허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콜드체인 물류 분야에서 고효율·고속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 10 월 아마존 글로벌 집하창 (GXD – GLOBAL EXPORT DOCK)이 톈진 동강보세구에 정식 개설, 이에 따라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화물은 **'산업벨트 제조공장–톈진 물류창고–톈진항–아마존 FBA'**로 이어지는 물류 경로를 통해 유럽과 미주 시장으로 직송할 수 있게 되어 북부 제조업체들이 기존처럼 남부 항만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물류 효율과 운송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칭다오지점
  - 아시아 최초 보잉 777-200LR 여객기 화물기 개조 생산라인이 칭다오에서 생산 개시, 맘모스 화물기는 칭다오에 총 2 개의 생산라인을 배치하며 첫번째 생산라인은 이번에 정식으로 생산을 개시하고 두번째 생산라인은 2027 년에 건설 완료되어 가동될 예정
- 밀라노지점
  - 높은 생활비와 경유 가격 상승이 소비자 및 운송업계의 불만을 키우면서 시위와 물류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고 있어 11 월에도 운송비 및 내륙 배송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밀라노 도심 시위 확산, 10 월 17~18 일 생활비, 휘발유 가격 및 세금 부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두오모 광장과 중심 상업지구에서 격화되어 일부 참가자의 투석·폭죽 투척, 경찰과의 충돌, 유리창 파손과 상점 약탈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진압 및 다수 인원 연행

- 밀라노 도심 시위 시 주요 도로 및 대중교통 접근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도심 픽업·배송은 집회 일정, 교통통제 및 현장 접근 가능 여부를 당일 재확인 필요

❁ 파리지점

- 프랑스 내 시위 및 소요 사태로 인해 도로 통제, 우회 운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륙 운송 지연 및 배송 차질이 우려됨

❁ 애틀랜타지점

- 11 월 3 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특히 GAS 가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선거이후 주정부 정책 변화에 관심 집중됨

- 자동차, 산업 제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Savannah Port 물동량 증가에 따라 수출입 운송 및 창고, 유통분야의 수요 확대가 기대됨

물류동향 📌

❁ 서울지점

- 미중 관세 협상이 구체화되면 보류된 중국발 대미 물량이 단기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트랜스퍼시픽 노선 모니터링 필요

- 아태발 미국행 항공 수요 9 월 중순 기준 전년비 약 +17% 수준, 서버·반도체·데이터센터 부품·신규 전자기기 출시 물량이 주요 견인 요인이며 이커머스 비중은 저가수입면제 (De Minimis) 규정 변경 영향으로 전년 대비 축소

- 유럽향은 트랜스퍼시픽 대비 수요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유럽내 이커머스향 게이트웨이 (부다페스트·리에주 등) 공급이 수요 감소와 함께 축소되는 추세, 반도체 등 고부가 수출(집적회로 수출 +95.4%)은 급증

- 전반적으로 올해 4 분기 성수기는 전년과 같은 급격한 폭증보다는 완만한 수요 증가로 전망되는 분위기, 태풍 등 기상 변수나 해상 스케줄 신뢰도 저하시 항공 전환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 상존

❁ 부산지점

【해운동향】

- 미주항로 : 파나마 운하의 수위 및 흘수 제한 여파로 선사들의 운항 스케줄과 적재량 제한이 남아있는 상황
- 유럽항로 : 수요 둔화기에 맞춰 선사들이 선가 방어 및 공컨테이너 회전을 위해 임시 휴항(Blank Sailing)과 항차 통폐합 시행중
- 동남아항로 : 생산기지 다변화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들로부터의 물동량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임은 안정세 진입

❁ 홍콩지점

- DHL 익스프레스는 홍콩 및 마카오 지역에 적용될 2027 년 1 월 1 일자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4.9%
- Cathay 중동 지역 여객 및 화물 운항 연기 발표, Cathay Pacific's 두바이 및 리야드행 여객기 운항이 2027 년 1 월 31 일까지 취소, Cathay Cargo 의 리야드행 화물기 운항 재개 또한 이에 맞추어 연기
- ASIA AIRFREIGHT TERMINAL 은 2027 년 종료되는 HONG KONG AIRPORT 운영 계약을 2028 년부터 2043 년까지 15 년 연장

❁ 타이페이지점

- TSMC 를 포함한 글로벌 AI 공급망 특수로 반도체 및 서버 관련 부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타오위안 국제공항(TPE)을 중심으로 항공화물 처리량 폭증, 아울러 고사양 AI 서버 및 반도체 장비의 긴급 수송으로 인한 항공운임 강세 지속
- 지속적인 태풍 영향으로 해상 지연 상황 심각

❁ 도쿄지점

- 파나마 운하의 흘수 제한 및 홍해·수에즈 노선 정상화 지연 등 글로벌 해상 물류의 제약으로 인해, 긴급 및 고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한 '항공 전환' 현상이 10 월 일본의 항공 화물 수요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 년 일본의 항공 수출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
- 도쿄항의 해상 컨테이너 드레이지 차량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운송업체의 업종 이탈과 터미널 대기시간 증가로 운임 인상 압력 상승추세, 일부 업체는 전년 대비 30~50% 인상을 단행하였고 아오미 A3 터미널의 대기시간은 최대 12 시간에 달하여 대기료, 터미널별 할증료, 야간 할증료 등 추가 비용 청구도 확대되고 있어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방콕지점

- 태풍 영향으로 중국 주요 항만 (닝보·상하이) 하역 중단 (10/23~25)과 기존 혼잡이 겹치면서 Intra-Asia 내 모선 스케줄 연쇄 지연, 일부 선사는 기항지를 변경하여 태국내 항만을 SKIP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수완나폼 공항내 TG, BFS 터미널에서 수입화물 도착 후 창고내 Location 미확인으로 반출·통관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10 월 초 TG 터미널 반입 중단 (10/1~6) 이후 누적된 적체와 인력 부족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
- 태국의 경유 가격이 최근 1 개월간 약 7% 상승 (40.69→43.54 바트/리터) 하여 내륙 운송 유류할증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방콕 동부 침수 이력 지역 (랏끄라방 등)은 추가 호우 시 픽업·반입·공컨 반납 지연이 재발할 수 있음

❁ 하노이지점

- 베트남의 3 분기 누계 항만 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12% 증가
- 베트남은 항만과 산업단지 물류센터 복합망 연계해 하이퐁을 국제물류 허브로 육성 계획, 북부 제조업 및 수출입 화물 성장에 따라 하노이-하이퐁간 트럭 및 컨테이너 운송 연계서비스의 기회 확대

❁ 호치민지점

- 가을 상품 해상에서 항공진행 및 겨울 상품 추가 증가로 인하여로 호치민발 항공 스페이스 타이트하며 미주 및 유럽향 항공 운임도 대폭 상승 추세
- 항만 적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균 2-3 일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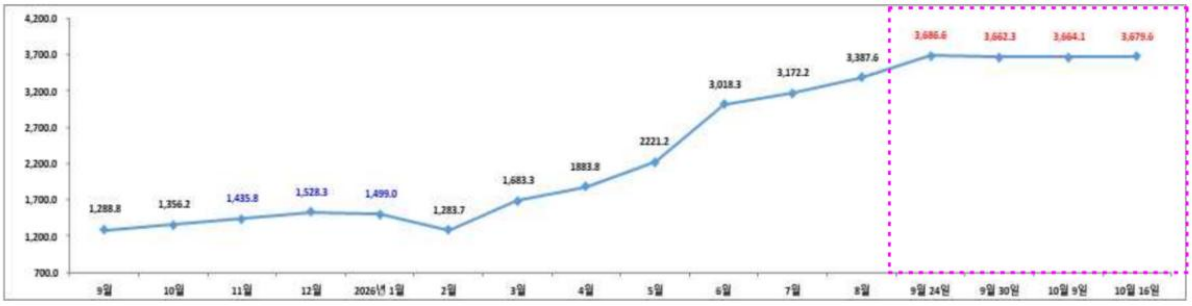
❁ 충칭지점

- 2026 년 10 월, 서부 육해신통로 철도-해상 복합운송 연간 누적 운송량이 100 만 TEU 를 돌파했고, 중유럽행 열차 누적 운행 횟수가 2 만 회를 넘어섰으며 장베이 국제공항 국제 화물우편 처리량은 전년 대비 130.9% 증가
- 상품 구조로 보면 충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고기술,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개선되어 기계, 전자제품이 수출총액의 92.6%를 차지했고, 리튬 배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1.7%, 자동차 53.3%, 노트북 23.2% 증가

❁ 상하이지점

【해운동향】

- 10월 16일 기준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3,679.58포인트로 전주 대비 0.4% 상승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상하이항의 9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513만 5,000TEU 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며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연이은 태풍에도 부두 간 협업과 컨테이너 이송 효율 개선을 통해 선박 회전율 및 야적장 운영 효율을 높임

【항공동향】

- TAC Index자료에 따르면 10월 상하이발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3% 상승, 항공유 급등과 성수기가 겹치면서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유럽 노선은 EU의 저가 소포 면세정책 조정 이후 일부 전자상거래 화물 수요가 감소한 반면,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 다만 노선별 수요와 공급 상황에 편차가 있음

❁ 광저우지점

- 북미 서부행 전자 제품 수요와 프로젝트성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며 운임 상승세 유지, 중부는 자동차 부품 수요 급증과 연휴 이후 제조업 출하 회복으로 큰 폭의 운임 상승 추세, 동부는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선출하 가속화로 대량 출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기 전환에 따른 일반 공급 축소(주7편→5편) 영향으로 가용 스페이스 부족 및 운임 상승세 지속
- 유럽은 전자 제품 및 전자상거래 물량이 주요 수요를 견인하며 시장 운임이 전주 대비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프랑크푸르트향 : 자동차 부품 수요 및 배터리 연관 제품의 대량 출하와 더불어 미주 노선 기재 재배치에 따른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시장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운임이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이며 11월 관세 인상을 앞둔 전자상거래 및 크리스마스 시즌 사전 출하와 자동차부품 대량 출하로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해운동향】

- Xeneta는 9월 글로벌 스케줄 정시성이 전월 대비 2%p 하락한 27%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평균 지연일수는 2분기 초 대비 2.4일 증가한 6일을 기록, 7월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태풍과 연료비 부담 증가 및 성수기 수요 증가가 정시성 저하의 주요 요인
- 한편 항만 혼잡은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싱가포르항의 일평균 대기

선박은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22척을 기록했으며 평균 외항 대기 시간도 8월 1.9일에서 9월 3.1일로 증가, 반면 상하이항의 외항 대기 선박은 8월 101척에서 9월 86척으로 감소했으나 평균 대기 시간은 1.9일에서 2.7일로 확대

- 선전지점

  - 11월 항공 화물은 전반적으로 AI 관련 하드웨어 (반도체, 서버 등) 수요를 기반으로 북미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히 상승할 전망
  - 반면 유럽 노선은 상대적으로 부진, 전자상거래 물량 둔화와 EU 관세 영향으로 수요 회복이 제한적

【해운동향】

- 중국 국경절 이후 수요 둔화에 대응해 주요 선사들이 임시 결항(블랭크 세일링)을 늘리면서, 11월에도 높은 운임 기조를 이어가려는 움직임
- 북미노선은 견조한 흐름 예상, 10월 중순 기준 상하이발 미서부 운임은 FEU당 7,525달러, 미동부는 1만 405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일부 선사는 11월 중순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 유럽노선은 선사들이 11월 운임 인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예: MSC 북유럽 4,500달러/FEU), 실제 시장에서는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로 유효 선복량이 늘어난 점도 운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 톈진지점

【항공동향】

- 1~9 월 임시 화물 전세기 65 편을 운항하여 전년동기 대비 141% 증가 (물동량은 2,800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단일 화물 120 톤, 길이 35m 의 초대형 화물은 물론, 생동물, 의약품 콜드체인, 위험품 등이 수송되었고 돌고래, 경주마 등 생동물 전세기는 '제로 딜레이(Zero-delay)' 통관을 실현
-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며 롤온롤오프 (Roll-on/Roll-off) 역량이 확대, 지난 8 개월간 천진 항구의 자동차 수출량은 54 만 7,000 대를 기록, 글로벌 롤온롤오프' 신규 야적장이 가동되어 5,000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 톈진-한국간 해상 운송 재개, 지난 9 월 30 일 천진-인천 카페리 (여객·화물 겸용) 시범 운항이 재개되어 양방향 화물 운송 가능

- 칭다오지점

【항공동향】

- 칭다오공항 : 10 월 3 일 칭다오/허페이 화물기 항로를 개설 (산둥항공, B738-BCF), 주로 첨단 제조와 전자 부품 운송을 담당
- 옌타이공항: 국경절 연휴 기간중 시안, 우한, 구이양, 난징, 다롄, 닝보 및 한국 서울 등 여러 국내외 항로를 복항 및 증편, 국제 인기 목적지는 한국 인천, 태국 방콕

【해운동향】

- 칭다오항은 지난 10 월 8 일 뤄양서우양산–칭다오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정기열차를 신규 개통하여 산둥성 항구의 정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노선은 총 110 개로 확대, 이러한 복합운송을 통하여 뤄양 지역 대외무역 화물의 칭다오항 출항을 지원

❁ 밀라노지점

- FSC (Fuel Surcharge) : 9 월 EUR 1.45/kg → 10 월 EUR 1.55/kg, 전월 대비 EUR 0.10/kg 상승 (약 6.9%), 11 월 적용 요율은 항공사별 공지 확인 후 별도 안내 예정
- 남부 이탈리아 트럭킹 비상 : 경유 가격 급등에 반발한 운송업계 파업·집단 시위로 Campania, Calabria, Puglia 등 남부 지역에서 도로 차단 및 물류 거점 출입 제한이 발생, 일부 구간에서는 트럭 운행과 화물 상·하차가 사실상 중단되어 픽업·배송 지연 및 출고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 10 월 20 일 보도 기준 시칠리아의 일부 봉쇄는 해제됐으나 다른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위와 교통 차질이 발생, 남부발 화물은 차량 배차 확정전 도로 개방 여부와 터미널 입출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고 항공 연결 화물은 여유 리드타임 확보 필요

- Maersk / Hapag-Lloyd (Gemini Cooperation) : 2026 년 10 월 현재 수에즈 운하 경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 기존 AE15·AE19 에 이어 9 월 발표된 AE5 (아시아–북유럽), AE11 (아시아–지중해), ME2 (인도–유럽) 서비스가 수에즈 경유로 전환되었으며 AE12(SE1)는 10 월 27 일 첫 운항, 특히 AE11 은 La Spezia · Genoa · Vado Ligure 를 기항하는 이탈리아 관련 노선으로 희망봉 우회 대비 운송거리 및 리드타임 단축이 기대되나 전 노선이 수에즈로 복귀한 것은 아니며 홍해 안전상황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애틀랜타지점

- DIESEL 가격 변동에 따라 트럭 운송 유류할증료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 연말 물동량 증가와 맞물려 운송비 부담 증가 예상
- 연말 성수기 화물 수요와 항공 유 가격 변동으로 운임 및 유류할증료가 조정될 수 있어, 주요 노선의 운임과 화물 공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파나마 운하의 통항 제한으로 선박 대기 및 운송 지연이 빈번하여 한국, 아시아발 미국

동부 및 걸프만 행 화물의 운송일정과 비용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선사별 스케줄 및 대체 항로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 Maersk 미국 내륙운송 할증료 인상 : $140.00/컨테이너→$215.00/컨테이너 (11월1일부)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각 항공사 유류할증료 갱신 (10/16~11/15) : KE·QR·TK 1,450→1,790, CV·C8 2,570, AF·KL·MP 2,090→2,610, LH·LX 2,180→2,260, 7L 1,590, VS 417
  - 아시아 노선 역시 유류할증료 변경 (10/16~11/15) : KE·TG·SQ 1,680 원, MH 1,540 원
- 홍콩지점
  - HONGKONG AIR CARGO December 2026 BSA Program – Australia
  - HKG/MEL (12/20~30, 7편), HKG-SYD (12/1~31, 14편) – 공히 PASSENGER FLIGHT
  - OOCL Announces New Transpacific Latin Atlantic Service 3 (TLA3)



- 방콕지점
  - OZ742 (아시아나항공, BKK→ICN) 기종 변경 (A380→A330, 2026.10.20부)
- 파리지점
  - TW : 매주 일요일 (D7) 비운항
  - MSC : 일부 모선은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운항 중
- 광저우지점
  - 파라타항공 (WE) ICN-SZX 구간 11.09 첫 취항 (A330-200)
  - ICN-SZX : D1245, 11:10~02:00+1 / SZX-ICN : D2456, 03:30~07:40
- 칭다오지점
  - 26년 4분기중 일조-인천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개설 (매주 2회, 월평균 8회 운항), 전자

상거래, 기계설비, 자동차 제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빈번한 수요에 부응, 일조항은 중국 유일의 1000km 철도 2개 노선이 항구 구역으로 직통하는 연해 항만

- 애틀랜타지점
  - 일부 중동지역의 영공통과 제한으로 운항 중단, 축소 지속
  - ORD 도착화물의 경우 지속적인 물량 증가 대비 공항내 화물처리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체화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 도착의 경우는 창고료 발생 가능성이 있음